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在日韓国人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金, 昌代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71

在日韓国人と「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

金 昌代

在日三世として大阪で生まれ育った私が、本名と出会い、母国語と出会い、祖国と出会い、そしていわゆる「民族的」に生きるようになるまで、いろいろな人との出会いがあった。

私が韓国に語学留学（一時帰国？）をしたのは、26歳のときだ。大学に通うようになってから5回ほど母国語にチャレンジしたが、とりあえず文字を何とか読めるところで終わってしまうのだ。それでも自分の国に対する義務感のようなものからまた学び始める、そして失敗する。義務感のようなものから始めるので面白くないのだ。韓国に行くと言葉の通じない中で生活していると、通じなくても自分の身体や心に心地よく響く音、それが私にとっての母国語であった。それと気づいたときに、とても人生が楽しいように感じた。そして日本に住む「韓国人」や「日本人」にその「楽しさ」を広げようと、日本で住む韓国人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にした。私が祖国にまつわる行事のチラシをいろいろな人に配るのは、そんな思いからだ。そうした行事を通じた出会いが、人と人との会話を弾ませ、お互いの理解に役立つからだと思っているからだ。

ちょうど「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が開催される頃、「韓国の名宝」展も行われていたので、一緒にチラシを配ることにした。「韓国の名宝」展は私も2回ほど見に行ったのだが、すばらしいの一語に尽きるものだった。本当にあれはすばらしい。そして、それを見に行く人もだいたい予想がついたし、その人たちの意見も「すばらしい」の一言だった。それはそれでよい。一方、「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は私も内容をよく知らずにチラシを渡していたので、「李さんて誰？」と聞かれたときに、「実在の人ではなくて、韓国人の代名詞としての李さんだろう」と、トンチンカンなことを言っていたくらいだった。

3月に大阪市内の公立小学校の教師に渡したチラシによって、その学校の5・6年生が4月末に行く遠足に「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の見学を組み込んでくれた。その学校の在日の児童と偶然話す機会があった。「すごい面白かった。韓国があんねんで。意味わからんけど、もっとゆっくり見たいから、オモニ（お母さん）とオンニ（お姉さん）と一緒にまた絶対行きたい」というその子の言葉を聞いて、「小学校の子が面白い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なんだ」と思ったのが、私を国立民族学博物館に行かせるきっかけになった。

はじめて見学したとき、生活用具の一式を見て、「ウワー、この人たち今どうして生活しているの？」というのが、一緒に行ったTちゃん（東京在住、小学校4年、同胞、女）の驚きだった。私も「李さん一家のくらし」といっても代名詞的に「李さん」だろうと思っていただけに、エッ本当に「李さんの家のものを全部もってきたの？」という驚きがあった。そして、それ以降、学校の先生、中学生、オモニ、友達と5回も国立民族学

博物館にまで足を運ぶことになる。もちろん私の知り合いもたくさん来て、一様に「面白かった」と行っていた。そこで、彼らのうちの何人かに「何が面白かったのか」を聞いてみた。

それらを紹介してみよう。

- Uさん（大阪在住，日本人，30歳代後半サラリーマン，韓国語学習中，韓国旅行年数回）

夫婦で見に行った。
旅行では見られない部分を全部見られた。
特に自分と同じサラリーマンの仕事部屋をすみずみまで見られたので，同じ人間としてすごく親近感を覚えた。
妻は特に冷蔵庫の中身に興味があった。
文化の違いを楽しむと同時に，生活のしんどさや喜びの感性が同じだなと感じた。
韓国がますます近くなる，とても楽しい企画だった。
あえて不満点を言えば，2階がもっと充実していたら韓国について何も知らない人がもっとわかりやすかったのではないかな。
- Kさん（大阪在住，80歳，在日1世，女）

展示にはあまり興味がなかった。踊りやパンソリが楽しかった。
食べるものがもっとあったらよかった。
- Mさん（大阪居住，50歳代，日本人，女）

とても生活の展示が楽しかった。（生活の隅々まで見ることができたので）
こんな企画を思いつき計画し実行できたということ自体が，国立民族学博物館でしか無理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また，協力してくれる人を見つけるというのもかなりむずかしいと思う。ここでしかできない企画をまたしてほしい。
- Sさん（大阪居住，在日4世，24歳，女）とAさん（神戸居住，日本人，24歳，男）

韓国の生活と日本の生活が日本と似ていて違うというのが一目で見て分かって面白かった。（写真や花瓶など）
特にいろいろな若い子のポスターなどに興味をもった。
マンガは韓国語で書かれた日本と同じものがあったので，韓国語を読みたくなった。（韓国語教室に行って友だちに教えてあげたら，すぐに読めるようになった）
今，生きている人間としての親しみを感じた。
みんなこん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なという興味を友だちがもったので，自分の国についていろいろと話をする機会をもてて，ある意味ですごくよかった。言葉も教えられたし，よかったです。

- Xさん（大阪在住，中学生，在日3世，女）

見学したことを壁新聞にして文化発表会で展示することで，全校の友だちにウリナラ（自分の国）の生活を紹介することができた。

きれいな踊りも見て，習って，文化発表会で発表した。自分たちが踊ったのでよかった。

今日，朝倉さんや大野木さんの話を聞いて，「見事にはめられたな」という思いがする。「企画した人たちの思惑どおりに動いてしまった私って何？」とってしまう。いろいろな世代や職業といった枠や，「日本人」「韓国人」というのを越えて，どんな人でも楽しめる場所があったのが，今回の企画が非常によかったところだと思う。自分の生活や興味によって，いろいろな部分に答えてくれたり，また知識を深めたり，ぼんやりと感じたりできる部分があったので，多くの人を楽しめた。

5回も行ってしまった私は，一階の生活の部分より二階部分が気に入った。出生から一生を見て，最後に一階にある実物大の墓を見ると，韓国人が大切にしているものをこの展示では大切にしているなど感じることもできた。見る人によって違うのだろうが，私は行くたびに2階をボーッとうろついてから，必ず墓を見て帰ってきた。5回も行ったのに写真を撮らなかったのはとても残念だ。そして，何と言っても「2002年ソウルスタイル」を見た人たちと自分の国について話げできたことが，私自身が一番楽しめたところだっ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阪市立加美小学校教諭）

재일한국인과 「2002년 서울 스타일」 전

김 창대

재일동포 3 세로써 오사카에서 자란 내가 한국식 이름과 우리말, 조국과 만나서 소위 말하는 「민족적」으로 살아 가게 될 때까지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가 한국에 어학유학 (일시 귀국?) 을 한것은 26 살 때였다.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5 번 정도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시도 했으나 한글을 읽기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 나라말이니까 라는 의무적인 감정이 강한 탓이라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시 실패하고 만다. 의무적인 감정에서 시작하니 당연히 재미가 없는 것이다.

말이 안 통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말은 안 통해도 자기자신의 몸과 마음에 상쾌하게 들려 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모국어였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참으로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 이런 즐거움을 나누어 주려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으로써 살아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내가 한국에 관련된 유인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야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알게 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2002년 서울 스타일」이 개최될 무렵에는 「한국의 명보」전도 개최하고 있었기에 같이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한국의 명보」전은 나도 2 번정도 보러 갔지만 그 전시를 본 사람들의 소감은 훌륭하다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었다. 정말 그것은 훌륭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시를 보러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짐작이 갔었다.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결 같이 훌륭하다라는 한마디였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좋았다. 한편 「2002년 서울 스타일」은 나도 내용을 잘 모르는 채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었으니 「이선생이 누군데?」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실재 인물은 아니고 한국인의 대명사로써의 이선생이겠지」라고 엉뚱한 말을 했었다.

3 월에 오사카시내 공립소학교 선생님께서 드린 유인물로 인해 그학교 5, 6 학년 학생들이 4 월말에 소풍으로 「2002년 서울 스타일」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학교의 재일동포 학생하고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다. 「너무 너무 재미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국이 있는거예요. 좀 더 차분히 보고 싶으니까 어머니랑 언니랑 같이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재미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이 나를 국립민족학박물관에 드나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봤을 때 생활용품 일식을 보고 「야, 이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라는 감상이 같이 간 T 양 (도쿄거주 초등학교 4 학년 동포, 여) 의 놀라움이었다. 나도 「이선생 일가의 생활」이라 해도 대명사로써의 「이선생」 인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진짜로 이선생택의 모든 것을 가져 왔네」라는 놀라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 학교 선생님, 중학생, 어머니랑, 친구와 같이 5 번이나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찾아 가게 되었다. 물론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찾아 와서 같이 「재미 있네」라고 감상을 나누었다. 그래서 그 중 몇명에게 「무엇이 재미 있었는가」를 질문 해 보았다.

그 답변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U 씨 (오사카거주, 일본인, 30 대 후반, 회사원, 한국어 공부중, 한국여행 경험 년 수차례)

부부가 같이 보러 갔다.

관광여행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모두 보았다.

특히 나와 같은 회사원의 일하는 방식을 꼼꼼히 볼 수 있었던 것이 같은 인간으로써 친근감을 느꼈다.

와이프는 특히 냉장고의 내용물에 흥미를 가졌던 것 같다.

문화의 차이를 실감하는 동시에 생활의 고달픔이나 기쁨의 감성이 같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은 점점 가까워 지는 것 같다.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

굳이 불만을 말하자면 2 층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한국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더 한국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K 씨 (오사카거주, 80 세, 동포 1 세, 여)

전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춤이나 판소리가 재미있었다.

한국음식이 좀더 있으면 좋았다.

M 씨 (오사카거주, 50 대, 일본인, 여)

생활전시가 정말 재미있었다. (생활 구석구석까지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기획을 생각하고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아니면 어려웠지 않았나 한다. 또한 협력해 주는 사람을 찾아 내는 것도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밖에 못하는 기획을 다시 해주었으면 한다.

S 씨 (오사카거주 동포 4 세, 24 세, 여) 와 A 씨 (고베거주 일본인 24 세, 남)

한국의 생활이 일본과 비슷한 것을 한눈에 봐서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사진이나 꽃병 등)

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의 포스터에 관심을 가졌다.

만화는 한국어로 씌어져 있어도 일본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읽어 보고 싶었다.
(한국어 교실에 가서 친구한테 가르쳐 주니 금방 읽을 수 있었다)

현재 사는 인간으로써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이런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관심을 친구가 가졌으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말도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X씨 (오사카거주 중학생, 동포 3세, 여)

견학한 감상을 벽보로 만들어 문화발표회에서 전시함으로써 전교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생활을 소개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춤을 보고 배워 문화발표회에서 발표했다. 우리들이 직접 출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아사쿠라선생님과 오노기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당했네」라는 느낌이 든다. 「기획자의 의도대로 움직였던 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각 세대나 각종 직업, 「일본사람」이나 「한국사람」이라는 틀을 넘어 어떤 사람이라도 즐거워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기획의 대단히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생활이나 관심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의문을 풀어 주고 또한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고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다.

5 번이나 구경한 나는 1 층 생활 부분보다 2 층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출생부터 일생을 보고 마지막에 1 층에 있는 실물대의 묘지를 보면 한국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 전시는 소중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갈 때마다 2 층을 그냥 막연하게 돌아 다니면서 반드시 묘지를 보고 돌아왔다. 5 번이나 갔는데 사진을 안 찍은 것이 아쉽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2년 서울 스타일」을 본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제일 즐거웠던 점이였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시립 가미초등학교 교사)

